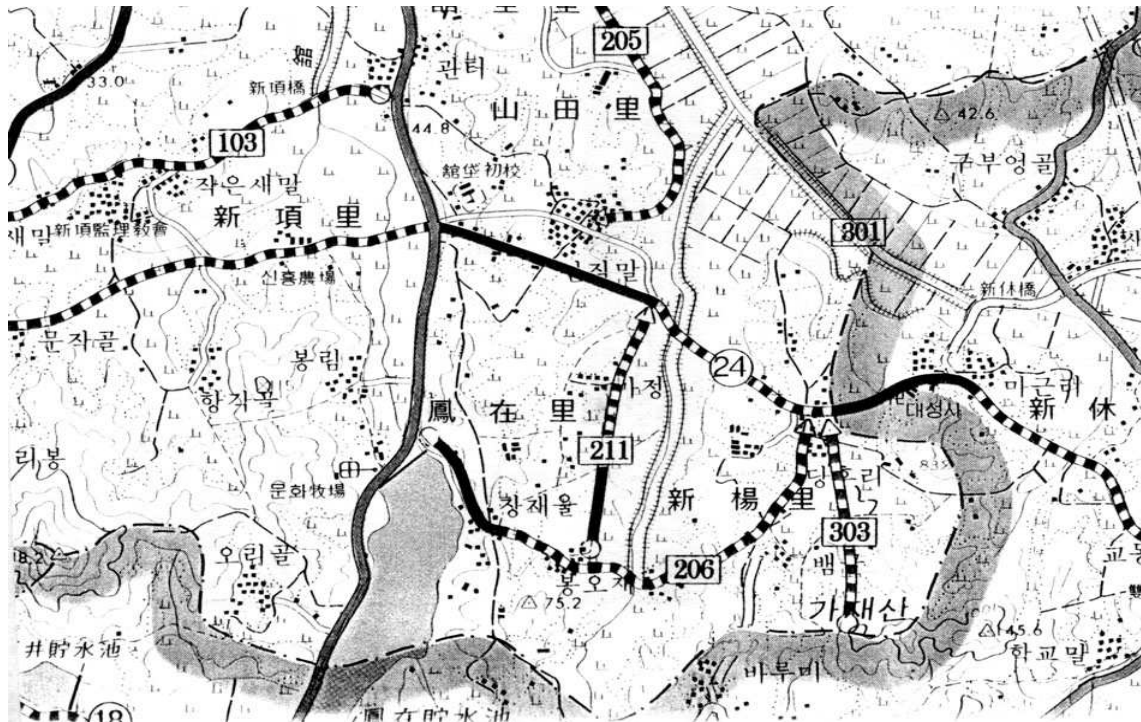


봉재리

봉재리(鳳在里)는 둔포면의 한 마을로 봉림 마을과 오릿골 마을, 그리고 장재울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봉재리 총 인구는 603명이고, 165호가 살고 있다. 가구 중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인데,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재동, 봉오리, 죽대리, 봉림리와 아산군 일북면의 백양동을 병합하여 봉림과 장재의 이름을 따서 봉재리라 하여 아산군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봉재리 위치도>



⊗ 장재울, 봉림, 오릿골, 마정리, 죽 텃골 마을

봉림1리는 봉림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뒷산의 모양이 봉황처럼 생겨서 '비봉투림형'의 명당이 있다 하여 봉림이라고 불리며 장재울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이곳에 큰 부자가 살았다하여 불리워졌다. 1994년 봉재리가 3개 마을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봉재1리는 봉림과 장재울만이 해당됨.

봉림2리는 장재울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오릿골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오동나무가 많이 심어져서 유래된 것이다. 오릿골 마을은 작게는 먹골과 각골로 나누기도 하며 또한 예전에 마을 앞이 바다였을 때 마을 앞에 작은 섬이 있어 그 섬에 오리가 많이 살아 유래 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봉림3리는 옛날 말몰이꾼들이 이곳에서 말에 죽을 먹이고 샘물을 먹였다하여 마정리라 불리었으며 원래는 봉재1리 지역이었으나, 1994년 분리되어 현재는 봉우재와 죽대리 지역만이 봉재 3리가 되었다. 죽텃골이라 불리기도 한다.

<조사당시 봉재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봉림 마을은 위도 36- 53- 30, 경도 127- 01- 50인 지역으로 장재울 마을의 서쪽에 위치하고 연암산 봉수의 서쪽말에 위치하고 있다.

오릿골 마을은 위도 36- 42- 40, 경도 127- 01- 40인 지역으로 음봉에서 45번 국도, 산항리 방면에 위치하고 있다.

마정리 마을은 위도 36- 52- 50, 경도 127- 02- 30인 지역으로 오릿골 건너 우측에 있으며, 오릿골에서 약 500m정도 떨어져 있다.

2) 현 황

봉림 마을의 인구수는 276명으로 남자가 147명, 여자가 129명이다. 그리고 호구수는 78호에 이르며 주민의 65%가 농업에 종사하며 35%는 축산업에 종사한다.

오릿골 마을의 인구수는 159명으로 남자가 69명, 여자가 90명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호구수는 46호에 이르며 주민의 88%가 농업에 종사한다.

마정리 마을의 인구수는 168명으로 남자가 80명, 여자가 88명이다. 그리고 호구수는 41호에 이르며 주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한다.

- 인구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봉림 마을	276	147	129
오릿골 마을	159	69	90
마정리 마을	168	80	88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축산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	기타
-----------	---	----	-----	-----	----	------	----

봉림 마을	100%	65%	35%	—	—	—	
오릿골 마을	100%	88%	12%	—	—	—	
마정리 마을	100%	85%	15%	—	—	—	

봉림 마을의 농경지면적은 논 47ha, 밭 10ha이며 농기계는 경운기와 이앙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마을의 문화시설은 앰프시설과 사물놀이 및 방송시설이 구비된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오릿골 마을은 논 13ha, 밭 12ha로 좁은 경지면적에 비해 넓은 밭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유대수는 경운기가 다른 마을만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농기계는 적은편이다. 마을의 문화시설은 앰프시설과 사물놀이가 구비된 마을회관이 1개소가 있다.

장재울 마을은 논 39ha, 밭 9ha이며 농기계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마을의 문화시설은 앰프시설이 구비된 마을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논	밭
봉림 마을	57ha	47ha	10ha
오릿골 마을	25ha	13ha	12ha
마정리 마을	48ha	39ha	9ha

- 농기계 보유 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곰바인	건조기
봉림 마을	38	3	28	2	50	4	3
오릿골 마을	30	5	25	1	25	2	1
마정리 마을	22	6	10	1	19	1	

- 문화시설

구 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봉림 마을	1개	1개	1개	1개
오릿골 마을	1개	1개	1개	—
마정리 마을	1개	1개	—	—

봉림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이씨가 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릿골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김씨와 이씨가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 50대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정리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이씨가 한산 이씨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와 4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 연령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2-80	81이상
봉림 마을	10명	30명	15명	23명	80명	75명	40명	30명	1명

오릿골 마을	10명	25명	13명	23명	32명	38명	10명	3명	1명
마정리 마을	45명	7명	50명	20명	45명	20명	10명	3명	1명

- 성씨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최씨	한씨	기타
봉림 마을	100%	13%	72%	-	-	15%
오릿골 마을	100%	31%	25%	9%	12%	23%
마정리 마을	100%	7%	22%	2%	17%	52%

- 학생별 분포 현황

구 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봉림 마을	13명	5명	7명	10명
오릿골 마을	10명	8명	4명	5명
마정리 마을	10명	3명	2명	-

- 최고령자

봉림 마을의 최고령자는 임숙빈씨로 101세 이시며, 오릿골 마을의 최고령자는 이규칠씨로 90세이시다. 마정리 마을의 최고령자는 이천순씨로 98세이시다.

- 호당 평균 소득

봉림 마을은 년에 약 850만원, 오릿골 마을은 약 750만원, 마정리 마을은 약 900만원이다

3) 자연경관

오릿골 마을은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음봉 둔덕산에서 발원하여 봉재리를 거쳐 둔포저수지와 관대를 지나 둔포천에 합류한다는 거무내가 있었으나 현재 거무내는 논으로 바뀌어져 있다.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한적하고 남동쪽에는 미륵사라는 절터가 남아있다. 장재울과 마찬가지로 작은 산들로 쌓여 있고, 음봉 둔덕산에서 발원하여 봉재리를 거쳐 둔포저수지와 관대를 지나 둔포천에 합류한다는 거무내가 있었으나 현재 거무내는 논으로 바뀌어져 있다. 오릿골 역시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한적하고 남동쪽에 미륵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은 높이 2m, 둘레 15m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님들도 이곳을 떠나거나 돌아가셔서 지금은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장재울 마을은 작은 여러개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 앞에는 봉재저수지가 있다. 이 저수지는 1944년 시설하였고, 만수량은 1,332천톤이다. 마을 앞에는 봉재교가 놓여 있다. 장재울 남쪽에는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고개 이름은 쇠고개라고 한다. 또한 장재울 앞에 있는 골짜기를 가재골이라 부르며, 장재울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돌겨골 또는 돌곶골이라고 부른다. 현재는 돌곶골에 도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봉림마을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소마비라는 통바미 서쪽에 논이 있고, 통바미라는 돌곶골 앞에 있는 논은 모양이 통처럼 생겼다는데서 유래되었다. 또한 뒷산의 모양이 봉황처럼 생겨서 "비봉투림형"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4) 마을 변천 과정

봉재리는 본래 천안군 모산면의 지역인데,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아산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재, 봉오리, 죽대리, 봉림리와 아산군 일북면의 백양동을 합하여 봉림과 장재의 이름을 따서 봉재리라 하여 둔포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장재울, 오리골과 마찬가지로 한산 이씨가 많이 살고 있으며, 터를 잡은 성씨는 한산 이씨이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는 70년대 후반이었으나 현재는 젊은이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오릿골 마을의 형성년대는 1700년대이며, 터를 잡은 성씨는 한산 이씨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한산 이씨가 많이 살고 있어 질서와 전통의 체계가 서 있다.

장재울 마을은 한산 이씨가 터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산 이씨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70년대 후반에는 인구가 많았으나, 80년후로 이농현상으로 젊은층이 많이 이촌을 했다 한다.

6) 지 명

봉 립 : 장재울 서쪽에 있는 마을로 뒤산의 모양이 봉황처럼 생겨서 '비봉투립형'의 명당이 있다하여 봉립이라 불리고 있다.

봉우재 : 장재울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연암산 보수 서쪽 밑이 된다.→{봉오리}

산직말 : 장재울 앞 건너에 있는 마을.

죽텃골 : 장재울 동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말뚝이꾼들이 이곳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고 휴식처로 삼았다 한다. →{마정리}{죽대}

농공단지 : 봉립 마을에 『자동차 회사』가 있고, 『강남물류(주)』라는 식품공장이 있다.

봉재교 : 장재울 앞에 있는 다리

봉재저수지 : 봉재리에 있는 저수지 1944년에 시설함.

오릿골 : 장재울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오동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오릿골이라 하였다.

떡 골 : 오릿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미역 취가 많이 난다고 하여 떡골이라 한다.

각 골 : 돌곶골(1구) 옆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데 이 골이 쇠뿔같이 각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무내 : 음봉 둔덕산에서 발원하여 봉재리 전역을 거쳐 둔포저수지와 관대를 지나 둔포천에 합류하는 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거무내는 현재 논으로 바뀌어져 있다.

미 립 : 오릿골 동남쪽에 있는 미립. 높이 2m. 둘레 15

미립사 : 오릿골의 남동쪽에 있는 절로서 높이 2m, 둘레 15m이다. 현재는 스님들도 돌아가셨거나 미립사를 떠나서 98년에 폐쇄시켰다. 그래서 지금은 터만 남았다.

무근다리 : 오릿골의 동쪽에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전해진다.

장재울 : 예전에 이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다하여 유래되었다.

안장재울 : 장재울 안쪽에 있는 마을.→{안터}

산직말 : 장재울 앞 건너에 있는 마을

쇠고개 : 장재울 남쪽에 있는 고개.

통바미 : 돌곶골 앞에 있는 논으로 모양이 통처럼 생겼다하여 통배미라 한다.

가곶골 : 장재울 앞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옛날 개우가에 가재가 많이 살았다해서 유래되었다.

돌곶골(돌격골) : 장재울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청일전쟁때 양군이 이 마을을 습격했다고 한다.

7) 전 설

·마정리 우물

죽텃골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마정리가 나오는데, 이 마정리에는 우물이 하나 있다. 이 우물은 『말쌈샘』이라고 하는데, 이 우물의 모양이 말의 음부처럼 생겼다해서 불리게 명칭이다. 또한 물이 많이 나서 옛날에 말꾼들이 말을 몰고 지나가다가 이 샘물을 자주 이용했다고 한다.

·연암산 전설

아주 먼 옛날 음봉땅에 한 처녀가 가족을 오랑캐에게 모두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이 처녀는 굳게 마음을 먹고 무술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오랑캐가 다시 쳐들어오자 장군에게 자신도 함께 싸우기를 청했다. 처음엔 거절했던 장군도 처녀의 굳은 의지와 애국심에 반하고, 처녀 역시 그 장군의 용감함에 반해 결국 둘은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혼을 하루 앞두고 오랑캐가 침입하는 바람에 장군은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장군의 부하가 처녀에게 돌아와 슬픈 소식을 전하고 말았다. 장군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처녀는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오랑캐 장군을 잠복 끝에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오랑캐의 장군이 죽자 적의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어 물러가게 되었으며, 처녀로 하여금 승리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 남녀를 합장해 주었다. 그 후에 그 무덤에서 제비 한쌍이 솟아 날아가다 멈춘 곳이 어느 높은 산의 넓은 바위였는데, 그곳에 제비가 둥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로 제비 한쌍이 둥지를 틀었던 바위를 연암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연암바위로 인하여 산 또한 연암산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인 집단행사

봉림 마을은 명절날 사물놀이와 줄다리기를 하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윷놀이만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동네 사람들끼리 소규모 계를 하며, 부녀회, 청년회등에서 마을의 애경사를 주관한다.

오랫골 마을은 명절 때마다 사물놀이와 줄다리를 하였는데, 젊은이도 없거니와 주민수도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정리 마을은 농한기때 마을어르신들을 효도관광을 보내드린다.전통놀이로 명절날 농악놀이와 줄다리가 있었으나 줄다리는 사라진지 오래 되었으며, 농악놀이는 마을의 행사가 있을 때만 하고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이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단체

기독교-봉재감리교회 (84)

은혜감리교회 (40)

봉재감리교회 (68)

11) 공장현황

·우일기기-봉재302-1, 허가일 92.03.26, 면적 2,200, 종업원수 4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진영-봉재244, 허가일 95.04.25, 면적 2,645, 종업원수 8

산업용플라스틱

·우영다이스-봉재362, 허가일 95.12.27, 면적 2,322, 종업원수 27

컴팩스다이스 제작

·새한 YOKOYAMA(주)-봉재264-1, 면적 664.4

·형제철강-고철 전문 업체

·폴리캠-플라스틱 파운드 제조업체

·혜반산업(주)-봉재80, 허가일 96.04.08, 면적 1,436, 종업원수 15

용접기

·전원식품-봉재244-1, 허가일 95.04.25, 면적 3,305, 종업원수 24

불고기가공 및 저장

·(새)새암 - 플라스틱용기 제조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은 전형적인 시골형이며 마을이 혈연을 주축으로 모여있어 질서와 체제가 있다. 봉재저수지에 낚시터가 있어 타지에서 주로 많이 오고 있으며, 꽃을 재배하는 '아산 꽃농원'이 있는 것이 마을의 자랑이자 특징이다. 더욱이 풍수지리와 관련있는 비봉투림형의 명당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흥미를 끌었다.